



산업분석 | 은행

Analyst
박혜진

02 3779 8634

oashes@ebestsec.co.kr

은행

인터넷전문은행 비금융주력자 지분보유한도 확대

비금융주력자 지분보유한도 4%에서 34%로 확대

인터넷은행에 대한 ICT(정보통신업)기업의 투자 한도가 확대되었다. 현행 비금융주력자의 지분보유한도를 4%(의결권 있는 주식 기준)에서 34%로 확대하였다. 동 인터넷전문은행법은 내년 1월 17일 시행예정이다. 따라서 기존 인터넷은행의 비금융주력자인 카카오와 KT는 각각 지분률을 각각 16%, 24%로 확대할 수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금번 제정안으로 3번째 인터넷 은행의 진입도 기대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ICT 기업에 대한 정의가 중요한데 금융위원회는 이를 현재 통계청 표준산업분류상 정보통신업(서적, 잡지 및 기타인쇄물 출판업, 방송업, 공영우편업 제외)으로 제한하고 있다. ICT 기업에 대한 개념은 좀더 포괄적이어서 금번 시행령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ICT주력기업에 대해서도 한도초과보유주주가 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여기서 ICT주력기업이란, 기업집단 내 ICT기업 자산합계액이 비금융회사 자산합계액의 50%를 상회하는 기업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은 현재 기업대출은 금지되어 있으나 중소기업 및 가계대출은 가능하다. 그리고 현 은행법보다 동일차주 신용공여 한도가 5%p 낮다. 카카오뱅크의 2018년 6월말 기준 여신잔고는 7.1조원, K뱅크는 1조원 수준으로 합쳐도 9조원에 못 미친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출현이 현 은행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미미한 편이다.

하지만 은행은 대표적인 규제산업으로 올해도 가계대출 성장을 제한되고 대출금리 산정방식에 대한 불편함을 금융당국이 제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동 결정은 은행의 여신집중도를 완화하고자 하는 의지가 크다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동 시행령은 네이버-미래에셋대우같은 상대적으로 카카오뱅크나 K뱅크보다 훨씬 큰 거대자본을 가진 기업의 진출을 허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은행산업에 실질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적지만, 어쨌든 간접적으로라도 긍정적인 뉴스는 아니다.

한국금융지주, 미래에셋대우, 그리고 키움증권

관련하여 카카오뱅크는 한국금융지주와 카카오간 내년 6월쯤 지분교환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미래에셋대우는 네이버페이를 이용한 CMA를 활용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간의 행보로 추정컨대 인터넷전문은행 자체에 대한 진출보다 투자목적으로 참여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키움증권은 그동안 인터넷 은행 진출에 대한 의지가 높았는데 금번 시행령으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표1 통계청 산업분류 상 정보통신업 종류 및 정의

포함여부	정의
개요	정보 및 문화 상품을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산업활동; 정보 및 문화상품을 전송하거나 공급하는 수단을 제공하는 산업활동; 통신 서비스 활동; 정보 기술, 자료 처리 및 기타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여기에는 출판, 소프트웨어 제작, 개발, 공급, 영상 및 오디오 기록물 제작, 배급, 라디오 및 텔레비전 방송, 방송용 프로그램 공급, 전기 통신, 정보 기술 및 기타 정보 서비스 활동 등을 포함한다.
제외	가. 출판업 학습 서적, 만화, 소설 및 수필집 등의 일반 서적과 신문, 주간지, 월간지, 연보 등의 정기 간행물 등을 발간하거나 소프트웨어를 출판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출판물은 자사에서 직접 창작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의하여 제작된 창작물을 구입 또는 계약에 의하여 출판할 수도 있다.
제외	나. 영상, 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영화 및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 배급 및 상영하거나 영화 제작과 관련된 필름 가공, 더빙 등의 제작 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과 음반 등 오디오 기록물의 원판 및 출판활동을 말한다.
제외	다. 방송업 라디오 및 텔레비전 등의 방송 프로그램을 지상파, 유선 및 위성 등의 각종 전송 방식에 의하여 송출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함	라. 통신업 유선, 무선 및 기타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음성, 자료, 문자, 영상 등의 각종 정보를 송·수신하거나 전달하는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함	마.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컴퓨터 시스템을 통합 구축하는 산업활동과 컴퓨터 시스템의 관리 및 운영관련 기술 서비스를 주로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함	바. 정보 서비스업 정보 처리, 호스팅 서비스 및 온라인 정보 제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 뉴스 제공 등의 기타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도 포함한다.

자료: 통계청,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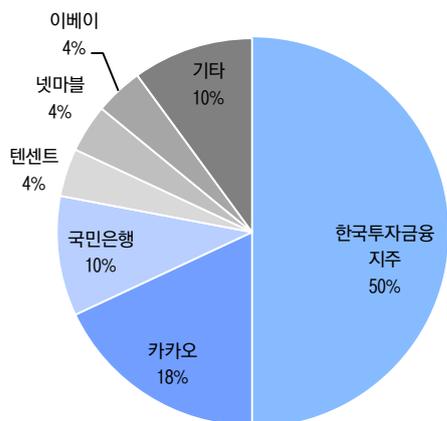
표1 은행법과 인터넷전문은행법 비교

	現 은행법	인터넷전문은행법
비금융주력자산 지분보유 한도	4%	34%
적용제외	(무의결권주 포함시 10%)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키지 않을 것, 정보통신업 비중이 상당할 것
대주주 결격요건	금융관련법령,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좌동
	-	특경가법 위반
	시행령 별표로 규정	법 별표로 규정
대주주 신용공여	자기자본의 25%	원칙 금지 * 예외: 기업의 합병 및 영업양수도 등
대주주 발행 증권취득	자기자본의 1%	원칙 금지 * 예외: 기업의 합병 및 영업양수도 등
대주주와의 불리한 거래제한 범위	매매, 교환, 신용공여	좌동
	-	용역, 리스 등 모든 계약으로 확대
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동일차주: 자기자본의 25%	자기자본의 20%
	동일 개인, 법인: 자기자본의 20%	자기자본의 15%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¹⁾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한정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 삭제
업무 범위	개인 신용공여 가능	좌동
	기업 신용공여 가능	금지 * 중소기업 신용공여 예외적 허용

(1): 은행의 이익에 반하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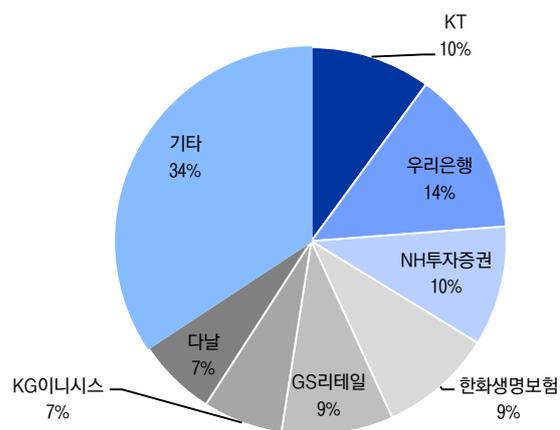
자료: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금융위원회

그림1 카카오뱅크 주주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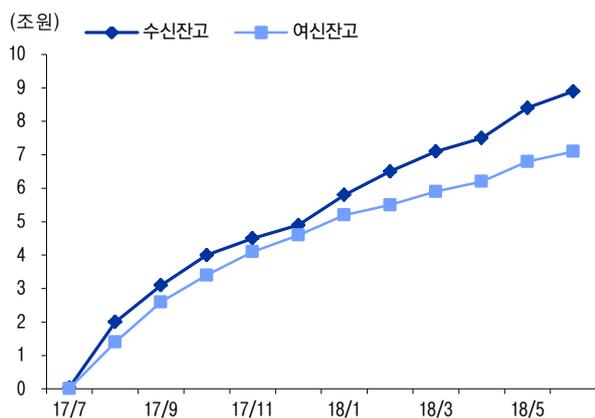
자료: 카카오뱅크,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 케이뱅크 주주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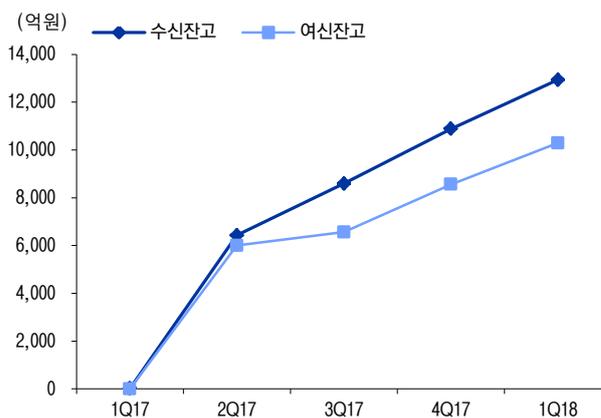
자료: 케이뱅크,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3 카카오뱅크 여수신잔고 추이



자료: 카카오뱅크,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4 케이뱅크 여수신잔고추이



자료: 케이뱅크,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작성자: 박혜진)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본부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유가증권 투자 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 변형될 수 없습니다.

- _ 동 자료는 제공시점 현재 기관투자가 또는 제 3 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당사에서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에 해당하는 회사는 당사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투자등급 및 적용 기준

구분	투자등급 guide line (투자기간 6~12개월)	투자등급	적용기준 (향후 12개월)	투자의견 비율	비고
Sector (업종)	시가총액 대비 업종 비중 기준 투자등급 3단계	Overweight (비중확대) Neutral (중립) Underweight (비중축소)			
Company (기업)	절대수익률 기준 투자등급 3단계	Buy (매수) Hold (보유) Sell (매도) 합계	+20% 이상 기대 -20% ~ +20% 기대 -20% 이하 기대	94.4% 5.6% 100.0%	2015년 2월 2일부터 당사 투자등급이 기존 4단계 (Strong Buy / Buy / Marketperform / Sell)에서 3단계 (Buy / Hold / Sell)로 변경 투자의견 비율은 2017. 10. 1 ~ 2018. 9. 30 당사 리서치센터의 의견공표 종목들의 맨마지막 공표의견을 기준으로 한 투자등급별 비중임 (최근 1년간 누적 기준. 분기별 갱신)